

지역 소식통

지역 음식점 '식중독지수' 고창군, 문자 서비스 호응

고창군이 관내 음식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중독지수 문자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4일 고창군에 따르면 식중독 발생이 높은 횡집, 김밥, 집안급식소 등 400여개소에 '식중독지수'를 문자로 알려줘 식품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고창군은 기상청에서 공개하는 식중독지수와 관리단계(관심, 주의, 경고, 위험)를 매일 오전 10시 위생관리책임자에게 문자로 발송해 철저한 사전 위생예방·관리로 식중독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중독 지수는 당일 기온과 습도 등을 고려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숫자로 표기한 지수다. ▲55미만은 관심 ▲71미만은 주의 ▲86미만은 경고 ▲86이상은 위험의 4단계로 분류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성내 하수관로 정비사업 고창군 8월부터... 2년간

고창군이 오는 8월부터 2022년까지 2년 동안 74억을 투입해 '성내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성내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위해 진행된다. 동림저수지에 인접해 있는 관동마을, 만각동마을 등 5개 마을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인근 성내공공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5.6km에 달하는 하수관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수달이 서식하고 수십만 마리의 가창오라들이 화려한 군무를 보여주는 동림저수지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이미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지자체로 그에 걸맞은 환경개선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2021년 신규사업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수돗물 안전해요"

자체 점검반 구성, 위도정수장·배수지 10곳 현장점검 "이상무"... 급속여과방식으로 유충발생 정수장과 달라

부안군은 최근 인천 등 수도권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 사태와 관련해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위도정수장 및 관내 배수지 10곳의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상수도 시설물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운영 중인 정수장 내·외부 청결상태와 수돗물 공급 계통별 시설점검으로 수돗물 생산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부안군은 관내 읍·면 12개소 및 위도정수장 1개소의 먹는 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한편 오는 27일에 한국수자원공사 부안관리사과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위도정수장의 정밀점검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수돗물 내 유충 검출로

인한 불안 및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부안군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상황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공공주택, 대형건축물,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의 저수조 수질관리와 청소·소독을 실시하는 위생조치를 통해 유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힘쓰고 있다.

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위도정수장의 경우 유충이 발생하는 입상활성탄 여과방식이 아닌 급속여과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유충 발생이 없었으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철저한 수질관리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24일 코로나19로 여파로 잠정연기했던 한국농촌지도자 정읍시연합회(이하 농촌지도자회) 회원 대상 과제교육을 시작했다.

한국농촌지도자 소통 리더십 기르기

정읍시농기센터, 영농 과제교육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24일 코로나19로 여파로 잠정연기했던 한국농촌지도자 정읍시연합회(이하 농촌지도자회) 회원 대상 과제교육을 시작했다.

영농 관련 과제교육을 통해 농촌지도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통 리더십을 길러 단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24일 과제교육을 시작으로 8월까지 농촌지도자회 읍·면 회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순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심신안정을 위한 원예치료 활동, 안화 만들기, 목공예품 등 읍·면별 회원들의 특성에 맞는 다채로운 과제교육과 농약 안전사용법 등 당면 영농 관련 내용으로 준비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또한, 교육은 교육장 소독약품 비치·교육생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더불어 보건소와 연계해 영농철 진드기 매개 질환(SFTS) 예방을 위한 교육도 함께했다.

한국농촌지도자 정읍시연합회 권동일 회장은 "빈 농약병 수거 봉사활동, 읍면별 현지 연찬 교육 등 5가지 사업을 하반기 중점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다"며 "농촌지도자회가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과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지도자회는 1957년에 조직되어 창조·우애·봉사 정신을 토대로 과학영농과 농촌문화 창달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공모 선정

6년 연속 쾌거...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과정, 다음 달 28일까지

정읍시립중앙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에 2015년부터 6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은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인 내국인의 상호 이해와 존중, 문화적 다양성 이

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열린 문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정읍시립중앙도서관은 이번 선정으로 8월 28일까지 '다문화 바리스타 과

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

'다문화 바리스타 과정'은 이주민들의 독립적인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격증 취득 과정이다.

프로그램 일정은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인원을 최우선으로 해 1기와 2기 두 번에 걸쳐 매주 2회씩 화요일과 금요일에 진행된다.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이주여성 20명이 참여하며, 20시간 교육 이수과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홈카페 마스터 자격증이 주어진다.

시는 이처럼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고 활용도가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면서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 장아메 씨는 "평소 이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은 한국어 수업, 부모 자녀 교육, 감정 코칭 등 정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프로그램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립중앙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8월 28일까지 '다문화 바리스타 과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

정읍시, 혈액 수급난 극복 '사랑의 헌혈' 동참

정읍시가 코로나19 사태로 가중되고 있는 혈액 수급난 극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4일 시청 광장에서 '사랑의 헌혈 운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단체헌

혈과 개인 헌혈이 감소해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직원들이 앞장서 헌혈수범하지는 취지다.

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된 '사랑의 헌혈 운동'은 시청 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시에 따르면 헌

혈인구 감소로 혈액 수급 부족 해결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헌혈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연 2회에 걸쳐 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헌혈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6시 30분까지 정읍 헌혈의 공간(2층, 시가동주민센터 2층)을 운영하며 시민의 헌혈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향기 머금은 힐링 도시 '젠결음'

산업 육성 전문가 초청 교육

정읍시가 사계절 향기와 매력에 넘쳐나는 새로운 힐링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민선 7기 후반기 핵심전략사업으로 구룡동 라벤더 단지를 중심으로 '향기공화국 정읍'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으며, 향기 도시 브랜드화와 차별화된 산업화 육성 로드맵 전략 등을 수립하고 있다.

'향기'를 주제로 힐링과 치유를 산업화하고 향기 산업을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로 만들어 대한민국 대표 향기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4일 정읍의 신성장 동력산업의 발관이 될 향기 도시 브랜드화와 향기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초청 교육을 가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번 전문가 초청 교육은 향기공화국 정읍의 비전을 실현하고, 향기 산업 관련 신규시책 발굴과 업무추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강의를 맡은 전북대학교 최정란 교수는 라벤더의 역사와 종류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재배 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라벤더가 후각과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기작과 에센셜오일의 효능에 대해 설명했고, 라벤더 활용 방안에 대해 강의 참석자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시는 천혜의 경관 기반과 자생차, 구절초, 지황 등 풍부한 주변 여건을 활용해 코로나 19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향기'라는 아이핀으로 부상시킬 계획이다. 또, 농촌관광으로만 한정되지 않고, 첨단산업단지과 연계한 기술개발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까지 산업화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